광주도시공사 여자핸드볼팀이 3일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진상태(맨 왼쪽) 감독을 비롯한 10명의 선수단이 광주핸드볼의 명예를 되찾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지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광주 핸드볼 명예 되찾는다"

■광주도시공사 여자 핸드볼팀 공식 출범

조대여고 출신 최슬기 등 선수단 10명으로 구성

광주도시공사(사장 김영진) 여자 핸드볼팀(이하 광주도공 핸드볼팀)이 공식 출범했다.

광주도공 핸드볼팀은 3일 오전 11시50분 염주동 국민생활관 1층 세미나실에서 창단식을 갖고 본격적인 훈련에 돌입했다.

이날 창단식에는 박광태 광주시장·김종하 대한핸드볼협회 명예회장·정형균 대한핸드볼협회 상임부회장을 비롯, 체육계 인사와 광주지역 학교 핸드볼팀 선수·시민 등 4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박광태 시장은 격려사를 통해 "오늘은 광주지역에 여자실업핸드볼팀이 창단된 매우 기쁜 날이다" 면서 "선수 관리와 팀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 잃어버린 광주핸드볼의 명예를 꼭 되찾길 바란다"고 밝혔다.

진상태 초대감독과 홍정호 플레잉 코치·최슬기 주장 등 10명의 선수단은 이날 "옛 광주시청팀의 명성을 광주도시공사의 이름으로 되찾겠다" 며 "창단 멤버로서 자부심을 갖고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 전국대회에서 좋은 성적으로 보답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광주도공 핸드볼팀의 창단으로 침체되었던 광주지역 핸드볼에 활력을 불어넣고, 광주시의 상징팀으로 성장해 광주체육 위상 제고에도 한 몫할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도공 핸드볼팀은 현재 진행 중인 슈퍼리그엔 참가하지 못하고, 오는 10월 전국체전에 출전할 수 있도록 대한체육회와 협의 중이며 연말에 열리는 핸드볼 큰잔치에는 참가할 예정이다.

현재 9명의 선수로 완벽한 팀 체제 구축엔 미흡하지만 올 전국체전 이후에 선수 4~5명을 더 충원해 확실한 전력을 갖출 계획이다.

광주도공핸드볼팀은 앞으로 염주종합체육관과 빛고을체육관을 오가며 하루 7시간씩의 기술·체력훈련으로 팀웍을 다진다. 이들은 옛 광주시청 여자핸드볼팀의 합숙소였던 광주 빙상장 2층을 리모델링해서 숙소로 사용키로 했다.

또 창단 첫해인 올해는 구단버스 구입 등 12억여원의 운영비 예산이 책정됐으며, 내년부터는 10억여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진상태 감독은 이날 "광주핸드볼의 명예를 되찾기위해 선수들과 최선을 다하겠다" 면서 "특히 국가대표 출신으로 다양한 실전 경험을 갖고 있는 홍정호 코치와 함께 선수들과 기량향상에 주력하겠다"고 다짐했다.

홍정호 플레잉코치는 "유럽과 일본에서 활약했던 경험을 토대로 감독과 선수 사이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해내겠다. 아울러 당분간 선수로서도 후배 선수들의 좋은 본보기가 되도록 솔선수범하겠다"고 굳은 각오를 밝혔다.

조대여고 출신으로 국가대표로 활약했던 최슬기 주장은 "운동을 처음 시작하는 마음가짐으로 성실하게 훈련에 임해 시민들이 좋아하는 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두손을 불끈 쥐어보였다.

광주도시공사핸드볼 선수단은 다음과 같다.

▲감독=진상태
▲플레잉코치=홍정호
▲선수=최슬기·임나리·신은화·원종희·권세희·전초롱·강두리·권세희.

/서승원기자 swseo@kwangju.co.kr

박지성·이청용 16일 에콰도르 평가전 출격

9일 소속 리그경기 모두 마쳐
기성용·차두리도 10일께 입국

축구대표팀의 '캡틴' 박지성(맨체스터 유나이티드)과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거 이청용(볼턴), 스코틀랜드 무대에서 뛰는 기성용(셀틱) 등 대표팀 주축 선수들이 오는 16일 에콰도르와 평가전에 뛸 수 있을 전망이다.

박지성의 국내 에이전트사인 JS리미티드는 3일 "박지성 선수가 리그 경기를 9일 모두 마치기 때문에 11일 또는 12일 입국할 예정이다. 에콰도르와 경기 출전에는 문제가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또 프리미어리그에서 맹활약하는 이청용과 최근 출장 기회를 줄어든 기성용도 9일 소속 리그가 종료되기 때문에 2010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을 앞두고 국내에서 치르는 마지막 A매치에 출격한다.

이와 함께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뛰는 수비수 차두리(프라이부르크)는 소속팀이 1부리그 잔류에 성공함에 따라 출국이 10일 전후로 앞당겨졌고 이영표(알 힐랄)도 12일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16강 경기에 출전하고 곧바로 귀국한다. /연합뉴스

〈박지성〉

〈이청용〉

맨유·첼시 나란히 승리 리그 우승팀 최종전에서 판가름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이하 맨유)와 첼시가 나란히 승리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팀은 오는 9일 자정(이하 한국시각) 킥오프될 최종라운드에서 가려지게 됐다.

박지성이 벤치를 지킨 맨유는 3일 오전 영국 선덜랜드 스타디움오브라이트에서 열린 2009~2010 프리미어리그 37라운드 선덜랜드와 원정경기에서 전반 28분 루이스 나니의 결승골로 1-0 승리를 거뒀다.

하지만 선두 첼시도 앞서 리버풀 안필드에서 치른 강호 리버풀과 원정경기에서 디디에 드로그바·프랭크 램퍼드의 연속골로 2-0으로 이기며 중대 고비를 넘겨 2005~2006시즌 우승 이후 4년 만의 정상 탈환에 한 걸음 더 다가섰다.

이제 팀당 한 경기씩만 남겨놓은 가운데 프리미어리그 사상 첫 네 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한 2위 맨유는 26승4무7패(승점 82)로 첼시(26승5무6패·승점 83)에 여전히 승점 1이 뒤져 자력으로는 우승할 수 없는 상황이다.

맨유가 스토크 시티와 36라운드 최종전 홈 경기에서 이기더라도 첼시가 같은 시각 위건 애슬레틱과 홈 경기에서 승리하면 리그 우승은 첼시의 몫이 된다.

맨유로서는 스토크 시티를 꺾고, 첼시와 위건과 경기에서 비기거나 지기만을 바라는 수밖에 없다. 맨유와 싸울 스토크 시티는 12위, 첼시와 격돌할 위건은 16위다.

한편 이날 정규리그 26호 골을 기록한 첼시 드로그바는 득점포를 가동하지 못한 맨유 루니와 득점 공동 선두가 돼 2006~2007시즌 이후 두 번째 프리미어리그 득점왕도 바라볼 수 있게 됐다. /연합뉴스

IB스포츠, 손연재를 '제2의 김연아'로

'차세대 육성 스타'로 낙점
국민은행과 1년간 후원계약

IB 스포츠가 '리듬체조 요정' 손연재(16·세종고)를 차세대 육성 스타로 낙점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IB 스포츠는 7~9일 프랑스 파리 인근 코르베유 에손에서 열릴 국제체조연맹(FIG) 리듬체조 월드컵시리즈에 맞춰 4일 출국하는 손연재에 붙여 관계자를 함께 보내 손연재의 기량과 성장 가능성을 자세히 점검한다.

IB 스포츠는 3일 국민은행과 1년간 손연재를 후원하는 계약서에 사인했다. 지난 7월 스포츠용품제조업체 휠라 코리아와 3년간 계약하는 등 세 군데 업체에서 후원을 받았던 손연재는 더 안정적인 여건에서 훈련에만 전념하게 됐다. 손연재는 이번 대회부터 국민은행 로고가 박힌 훈련복을 입는다.

㈜올댓 스포츠를 설립한 '피겨여왕' 김연아(20·고려대)와 3년 계약 기간이 끝난 뒤 아름답게 결별한 IB 스포츠는 팬들의 관심이 뜨겁고 리듬체조에서 세계적인 스타로 발전 가능성이 짙은 손연재를 간판으로 키울 계획이다. /연합뉴스

'팔꿈치 부상' 이용대 두달간 재활 전념

한국 셔틀콕의 간판 이용대(22·삼성전기)가 작년에 다친 팔꿈치 통증을 뿌리 뽑으려고 두 달 동안 재활에만 전념한다.

김중수 배드민턴 국가대표팀 감독은 3일 "이용대는 6월말까지 대회에 출전하지 않고 재활 치료에만 매달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감독은 이어 "이용대는 9일부터 열리는 세계남녀선수권대회에도 빠진다"면서 "재활과 웨이트트레이닝을 병행하다가 7월부터 훈련을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작년 8월 세계선수권대회 도중 팔꿈치를 다친 이용대는 상태가 악화해 지난 1월 말레이시아오픈 도중 기권하고 나서 재활에 힘썼다.

2개월만에 나선 전영오픈에서는 통증은 없었지만 부상 우려 때문에 시원한 스매싱을 하지는 못했다. 그러다 지난달 종별리그전 도중 미세하게 통증이 재발했다. /연합뉴스